

지역화폐운동의 소비문화적 의미 연구:

“한밭레츠” 참여자의 소비행동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eaning of Consumption Culture of Community Currency Movement: Focusing on "Hanbat-LETS" Participants' Consumer Behavior

천경희* · 이기춘

대전대학교 아동벤처산업학과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Kyung Hee Chun · Kee Choon Rhee

Dept. of Venture Business for Children, Daejeon University ·

Dept. of Consumer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onsumption cultural meaning of Community Currency Movement - a substitute currency institution - through an analysis of consumption behaviors and attitudes of Hanbat-LETS participants, who are recognized as the most active among Korea Community Currency Movements. The analytical method adopted in this study is the participation and observation method, along with the Focus Group Interview.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Hanbat-LETS participants experienced the following consumption behaviors and attitudes : economical consumption behavior creating the currency value, sustainable consumption behavior, consumption behavior shared with community, consumption behavior free from the need of competition and ownership, satisfaction from offering one's property, equal status and relationship among members, merry and happy attitude toward life.

Community Currency Movement implies the consumption cultural meaning as followings : emergence of alienation through the realization of community society, practice of environment-friendly value, activation of region economy, development of one's ability and means of redemption of unemployment, construction of trustworthy society via trust.

Key Words : Community Currency Movement, LETS(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 consumption behavior, consumption attitude, the meaning of consumption culture

I. 서론

지역화폐(Community Currency)운동은 현재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유럽, 남미, 아시아 각 국을 포함해 전 세계 2,000여 지역 이상에서 실험되고 있는 새로운 지역사회운동이다. 저마다 특성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지역화폐운동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려는 차원에서 시작되어 실업자 및 저소득층 보호, 자원봉사 활성화, 지역사회 상호부조 증진,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에 기반을 둔 경제제도 재구성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김동배, 김형용, 2001).

지역화폐란 한정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법률로 정해진 국가화폐 즉 원이나 달러, 엔, 유로, 마르크 등과 대비되는 단어인데, 보완통화, 지역통화, 자주통화, 자유통화, 회원제통화, 커뮤니티통화, 그린달러, 에코머니, 오리 지널머니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지역화폐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사용하여 그 지역 내의 돈을 순환시킴으로써 경제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꾀함과 동시에 글로벌 경제로 인해 붕괴되고 있는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아베 요시히로, 2003).

Seyfang(1997)은 지역화폐에 대한 그간의 광범위한 실

* Corresponding author: Chun, Kyung Hee
Tel: 042) 489-0226, Fax: 042) 489-0226
E-mail: ckh0336@hanmail.net

중적 연구들을 분석하면서 지역화폐가 강건한 지역경제발전, 환경의 질적 향상, 책임성과 평등 및 상호자립과 같은 사회적 윤리를 증진시킨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그는 지역화폐가 비공식 부문에 뿌리박고 있다는 점과 공식경제로부터 소외된 이들과 자원들을 다시 사용 가능케 한다는 점을 중시하면서, 지역화폐를 선물(gift)경제, 자원봉사, 박애와 같은 전통적인 비공식경제를 공식화하는 시도로 보았으며, 이러한 비공식경제의 정신을 공식영역에 확장시켜 '공동체주의 경제'를 재창조하는 것이 바로 지역화폐의 목적임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형용, 2000).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보편화된 20세기 초에 시장경제가 위축되었을 때 국가화폐가 원활히 유통되지 못하는 것을 만회하기 위한 대안화폐로서 지역화폐가 등장하였던 적은 자주 있었다. 그러나 이전의 지역화폐제도들은 국가화폐시장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또는 경제상황이 호전되면서 그 역할이 감소하여 현재는 대부분 사라진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지역화폐제도인 레츠(LETS), 타임달러(Time Dollar), 아워즈(HOURS)는 국가로부터도 강력히 지지받고 있는 보완적 의미의 화폐로 인식되고 있다.

레츠(LETS=Local Exchange and Trade System)는 원래 1980년대 초 높은 실업률로 침체되어 있던 캐나다 브리티쉬 컬럼비아의 코복스라는 곳에서 마이클 린턴(Michael Linton)에 의해 시작된 지역교환체계로서 경제의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기업식민주의의 가공할 압력 밑에서 궁핍화와 착취를 강요당하는 풀뿌리 공동체들의 자기방어와 회생을 위한 주목할 만한 수단(Linton, Soutar, 1994)으로, 세계 곳곳에서 '들꽃'처럼 피어나고 있는 '지역화폐제도'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화폐제도의 주된 도입 요인은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 때문이었다. 사람들의 기술과 시간이 존재하며 그 기술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이유를 국가화폐의 부족 때문으로 파악하고, 국가화폐 없이도 상호거래 및 교환을 촉진시킬 방안으로서 지역화폐를 고안하였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지역화폐제도가 도입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지역화폐운동이 활성화되면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생기는 에너지 낭비와 폐기물을 줄일 수 있으며 내게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지역화폐운동은 재사용, 지속가능한 소비 등 생태주의 사회로 진전하기 위한 실천적 장의 역할을 하게 되며 아울러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경제제도인 지역화폐제도는 일반적인 시

장질서나 유사시스템과 다른 특성을 지니는데, 대응성, 호혜성, 기록성, 공개성 네 가지 측면이 그것이다(이창우, 2002). 즉 지역화폐제도는 일반적인 시장질서와 서로 간의 채무관계는 비슷하지만 빌린 사람에게가 아니라 회원 중 아무에게나 갚으면 된다(대응성). 한편 자원봉사와 비슷하나 봉사의 대가가 있으며(호혜성), 이웃 간의 상부상조와 비슷하나 도와주고 나눠주고 빌려준 일을 모두 기록해 놓으며(기록성), 은행의 계좌와 비슷하지만 이자가 없고 거래내역을 회원에게 공개(공개성)한다(박경화, 2004).

이처럼 지역화폐제도는 기존의 화폐제도와 경제적, 사회적, 가치체계적 측면에서 서로 다른 틀 안에서 운영되는 제도로 구성원 각 개인이 추구하고 기대하는 소비가 치관이 기존 경제제도에서와는 차이를 보일 것이며 따라서 그들 나름의 독특한 형태의 소비문화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소비문화는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행위나 관행을 나타내는 일반적이고 분석적인 개념으로, 그 사회의 세계를 해석하고 구성하는 관념이나 활동 즉 '문화'가 소비재나 소비행동에 내재되어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개념이다(McCracken, 1988). 따라서 특정 사회의 소비문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소비행동과 소비태도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즉 지역화폐제도에 속한 사람들은 지역화폐제도 내에서 그들 방식의 소비행동을 하고 소비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므로 기존의 화폐제도에서와는 다른 고유의 소비문화를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지역화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소비자로서 어떻게 소비행동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소비태도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여 지역화폐운동이 담고 있는 소비문화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터인데 이는 새로운 대안경제제도로 등장하여 확대되고 있는 지역화폐운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소비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소비연구에 대한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노력은 나아가 시장경제의 질서 속에서 거래의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복한 소비생활을 영유하게 하기 위한 노력인 소비자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시도로서의 함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화폐제도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전의 한발레츠를 대상으로 지역화폐가 실제 어떤 방식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지역화폐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한발레츠 공동체의 운영체계 내에서 구성원들은 어떻게 참여하고, 그들 구성원 간의 관계와 거래지위 그리고 거래방식은 어떠한지 살펴봄으로써 대안적인 경제제도 내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한발레츠 공동체 구성원이 지역화폐운동에 참여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소비행동과 소비태도를 알아봄으로써 지역 화폐운동이 가지는 소비문화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지역화폐운동의 개념과 현황

1. 지역화폐운동

지역화폐운동은 노동력과 물품을 가상의 지역화폐를 매개로 교환 거래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려는 일련의 노력이다. 즉 회원 간에 돈 없이도 재화와 서비스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를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능력을 갖고 있으며 돈이 없더라도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역화폐운동은 시작되었고 그 기본원칙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이창우, 2002). 이러한 지역화폐운동은 1980년대에는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다가 1990년대 들어 급속히 보급되는데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 영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웃 일본에서도 현재 약 170여개의 지역통화 시스템이 있는 것(소병철, 유창수, 2004)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화폐운동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화폐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한 연구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000개 정도의 지역화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Brandt, 1995; 권인천, 2001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초반에 급속하게 확산되어 30여개 이상이 주민조직,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North(2000)는 지역화폐제도를 지역화폐의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역화폐의 가치를 시간으로 환산하는 지역화폐유형으로 LET Scheme, Talents, Time Doller, Hours 등이 이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지역화폐의 가치를 국가 화폐와 동일하게 매기는 것으로 LETSystems, Deli Dollers, WIR 등이 이에 속한다. 전자는 주로 영국에서 발달한 방식으로 표준노동시간으로 가치를 매기는 일종의 노동화폐 방식이고 후자는 캐나다의 마이클 린튼(Michael Linton, Landsman Community Service LTD, 대표)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갖는 공동체 화폐 혹은 지역 화폐 단위를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지역화폐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레츠(LETS : 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의 도입배경은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실업이었다고 한다. 1983년 지역화폐 거래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던 캐나다의 컴퓨터프

로그래머 마이클 린튼이 녹색달러라는 지역화폐를 만들어 회원을 가입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재화와 서비스를 서로 교환하도록 한 것이 현대적 의미의 지역화폐의 시초이다.

레츠(LETS)는 지역교환거래체계, 혹은 지역고용거래체계(Local Exchange (Employment) & Trading System)의 영문 이니셜로 지역화폐, 지역통화, 지역고용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Brandt, 1995). 레츠라고 하는 지역 화폐 거래제도는 회원 간에만 통용되는 화폐를 발행하거나 계좌를 개설하여 돈 없이도 회원 간에만 통용되는 화폐를 병행하거나 계좌를 개설하여 돈 없이도 회원 간에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받는 제도이다. 즉 참가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서로 자발적으로 거래하는 자율적인 경제네트워크이며, 각 참가자가 교환의 매개체로서 고유한 지역화폐를 발행, 관리하면서 이용하는 구조이다(西部 忠, 2000).

국내의 대부분의 레츠는 개인별 계정을 만들어 컴퓨터 상에서 관리한다. 그러나 미국 이타카 시의 아워즈(Hours) 같이 화폐를 직접 발행하여 사용하거나 영국의 몇몇 도시처럼 수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레츠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여성만이 회원이 되는 여성레츠, 예술가만이 회원이 되는 예술가레츠, 여러 레츠가 모여 만들어지는 멀티레츠, 한 대규모 레츠 안에 하부레츠가 생기는 레츠 인 레츠, 실제로 화폐를 발행하는 이타카 아워, 시간을 단위로 모든 노동가치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타임달러 등 다양한 레츠가 있다.

이러한 지역화폐운동은 지역마다 성격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려는 차원에서 시작되어, 실업자 및 저소득층 보호(Williams, 1997), 자립적 지역경제의 창출(Pacione, 1997), 지역사회 상호부조 증진(Cahn, 1997),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에 귀속된 경제제도 재구성(Thorne, 1996) 등으로 평가받고 있다. 즉 무엇보다도 지역화폐운동은 주로 지역사회를 자립하게 하며, 지역주민들 간의 네트워크를 회복시키려는 목표로 제안된 대안경제제도로 인식되고 있다(권인천, 2001).

실업 구제책, 노인복지 대안, 환경보전 수단 등으로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는 지역화폐가 시중화폐와 다른 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시중화폐는 어디서나 사용될 수 있지만 지역화폐는 한정적 지역 내에서 회원 간에만 사용된다. 둘째, 시중화폐는 항상 희소하지만 지역화폐는 필요한 만큼 언제나 적절하게 있다. 셋째, 시중화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을 적게 가진 사람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지역화폐는 권력행사나 지배의 수단이 되지 못한다(이창우, 2002)는 점이다.

이러한 지역화폐운동에 담겨있는 핵심은 공동체를 살리고자 하는 운동이면서 환경운동으로서 아울러 공간시

시스템으로서의 생물지역주의(bio-regionalism)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화폐운동은 가능한 한 생물지역주의를 토대로 하여 우리 삶의 양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재조직해나가고자 하는 운동으로서 통화에 대한 통제수단을 지역공동체가 갖고 유희상태의 기술과 자원을 다시 순환시키고자 하는 운동(박용남, 2001)인 것이다.

2. 우리나라의 지역화폐운동

우리나라에는 두레, 품앗이, 계가 있어 오래 전부터 서로 돕고 보살피고 나누고 협동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즉 지역화폐는 이를 오늘의 현실에 맞게 현대판 시스템으로 재구성한 다자간 품앗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화폐운동은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인 물물교환의 현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화폐는 1996년 '녹색평론'이라는 잡지를 통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었다. 그리고 2년 뒤인 1998년 3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미래사)'이 미래화폐(Future Money)란 이름으로 지역화폐제도의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즈음은 IMF 구제금융체제가

우리나라를 한창 누르고 있었던 시기인데, 지역화폐운동이 경제위기를 대처해 나가기위한 대안경제운동으로 주목받으면서 당시 신문이나 방송,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관심과 열기가 증폭되었으며, 주로 실업자 구제책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다. 만약 IMF 구제금융체제가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다면 지역화폐제도로서의 LETS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짧은 시간에 소개되고 확산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미래사' 이외에도 '불교환경교육원', 인천의 인하대학교에 소재한 '인천정보센터', 중앙대학교 부설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기술도구은행', '관악지역화폐' 등의 지역화폐제도가 있다. 그밖에도 도서출판 '작은 것이 아름답다'의 '작아장터', 교육관련 출판사인 '민들레'의 '민들레 교육통화' 등도 있다. 또한 서울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의 송파품앗이의 '송파머니'와 대구 동구청의 '봉사품앗이', 안양시청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역화폐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역화폐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박용남, 2001). 이밖에도 대전 한밭레츠 '두루'를 비롯하여 안산 고잔품앗이 '고잔머니', 경남 진주시 '상봉레츠', 그린네트워크의 '녹색화폐(GMS : Green Money System)' '사랑', 광주 '나누리'와 부산녹색통화추진본부, 청주시청,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 등의 지역화폐제도도 있다.

<표 1> 우리나라 지역화폐제도 현황 1 - 운영기관 특성 및 회원 자격

번호	운영체계이름	운영기관이름	운영기관 특성	전화번호	지역통화이름
1	fm시스템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	비영리단체	02-747-2261~2	fm(future money)
2	서초 품앗이 저축은행	서초구청 기획예산과	지방자치단체	(02)570-6315~8	GM(green money)
3	송파품앗이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구립민영지역자원봉사센터	(02)2202-2351	SM(songpa money)
4	경제 활성화센터	대구 동구청	지방자치단체(경제종합지원센터)	(053)429-1381	DN(denarius)
5	햇츠 코리아	인천정보통신센터	지역정보화사업실시 민간기관	(032)868-8566	AM(angel money)
6	작아 장터	도서출판-작은 것이 아름답다	비영리 민간단체	(02)744-9074~5	없음
7	녹색가게	구리 YMCA	비영리 민간단체	(0346)557-6351	통화없이 교환권으로 대신
8	전주 품앗이	전주 근로자 선교 상담소	종교단체	(0652)272-2794	품앗이
9	교육통화	민들레교육상생체	비영리 민간단체	(02)322-1603	민들레
10	아름다운지역공동체나눔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비영리 민간단체	(032)423-9708	나눔
11	기술도구은행	중앙대학교 부설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기관	(02)872-5802/7906	CM(credit money)
12	감리교 통합품앗이	감리교 농촌선교 훈련원	종교단체	(0446)872-8979/0053	품

<표 2> 우리나라 지역화폐제도 현황 2 - 회원 등록방법 및 현황

번호	운영체계이름	회원자격	등록비	등록방법	현황
1	fm 시스템	자신의 기술, 서비스를 남과 나누려는 뜻이 있는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시민이면 누구나	10,000fm(서비스가 전액일때) 10,000원(서비스가 현금과 fm을 병행할 때)	직접 방문하여 소정의 약정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전화로 가등록후 약정서를 받아 정식으로 등록	98년 3월 국내 최초로 품앗이 네트워크를 시작, 여러곳이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을 주고 있음(회원 450여명, 거래건수 월 20여건, 제공품목: 농산물을 비롯한 각종 물품과 서비스)
2	서초 품앗이 저축은행	18세 이상의 서초구민 또는 직장인	없음	구청, 동사무소에 비치된 소정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구청 기획예산과에 제출	98년 전국지방 자치단체 중 가장 적극적으로 제도를 도입 운영. 현재 회원 281명 등록, 실업대책구상의 하나로 검토
3	송파 품앗이	18세 이상의 송파구 및 인근지역 주민 또는 직장인	없음	직접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작성	99년 6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시작, 7월 사업설명회 및 발족식. 현재회원 90명, 거래건수 51건, 제공품목: 컴퓨터 교육, 수리, 자동차 수리, 피부관리, 도배, 집수리, 자녀교육 상담, 전축수리, 피아노레슨, 워드대행, 미용, 야외학습 등
4	경제 활성화센터	중구 구민 누구나 (특별한 제한 없음)	없음	전화 등 통신 및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98년 6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들의 상호부조 활동으로 살기좋은 지역 사회를 이루는데 그 목적을 둠. 회원 520명으로 초기 3주동안 무려 161건의 높은 거래량을 보이기도 함. 교습과 강의에 거래 품목 집중
5	레츠 코리아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음	10,000원(거래 발생시 거래액의 3% 수수료 또는 분기별로 5,000원 들 중 하나 선택)	전화 또는 홈페이지 직접 방문해 신청서 작성 (www.letskorea.org)	회원 2,000명 정도. 최근 인하대만을 단독으로 하는 시스템을 대학이 준비하고 있어 대학생 회원들을 이전시킬 계획임
6	작아 장터	잡지, '작은 것이 아름답다' 구독자	없음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99년 1월 재활용 가능한 상품의 교환 및 노동력 교환 - 특히 여행 안내 서비스가 많음
7	녹색 가게	제한없음	없음	주로 방문	재활용 가능한 상품의 교환 및 노동력 교환
8	전주 품앗이	제한없음	5,000원	통신 및 방문	99년8월26일 발족식. 현재 회원 72명. 서비스품목: 단순노동, 학원교습, 페인트, 재활용상품, 컴퓨터수리, 워드대행, 피아노레슨, 농산물 등
9	교육통화	잡지 '민들레' 회원	없음	통신 및 서면	99년 1월 민들레지 회원만을 대상으로 실시, 기술 및 교육 관련 품목 교환
10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나눔	회원 1명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나눔 사무국과 면담 후 회원자격이 인정된 사람	연회비 3,000원 (1% 거래 수수료 공제)	전화, 방문, 통신	99년 5월 시스템 구상 시작, 7월말 설명회 개최, 현재 회원 50명
11	기술 도구은행	없음	없음	방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soback.kornet.net/~causwc)	99년 2월 삼성지원사업으로 개시, 경제, 정서지원에 목표를 둔 프로그램으로 편성. 현재 회원 314명. 거래건수 월 20여건
12	감리교 통합품앗이	감리교인	10,000원 또는 10,000품	전화, 문서, 방문	99년 11월말부터 시작, 시스템의 특성상 단순노동을 필요로 하고 제공하며 농산물을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많음

자료 : 한발레츠 홈페이지(<http://www.tjlets.or.kr/index.html>) 자료실 - 2000년 8월 10일 자료

2000년 11월에 미래사(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와 불교환경교육원이 공동으로 서울에서 개최한 '지역통화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에 의하면 당시 31개에 달하는 지역화폐 운영단체가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나라가

IMF를 극복하면서 지역화폐도 일반시민과 방송언론매체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그 수가 줄어(이창우, 2002), 현재 미래사의 '미래머니', 작아장터, 그린네트워크의 '녹색화폐 사랑', 한발레츠 등이 명맥을 잇고 있을 뿐이다(소

병철, 유창수, 2004). 한편으로 최근 신용불량자와 실업률이 증가하고 공공의 사회복지에 대한 가치가 높아가면서 다시금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2002년 6월 경기 안산시 고잔1동에서는 안산 고잔품앗이(www.pumasi.net)가 지역화폐 이름 '고잔머니'(GM)로 시작하였는데 현재 등록 회원이 260여명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004년에는 부산에서 새로운 지역화폐제도가 창립되었으며, 2005년 4월 22일 대구에서는 달서구 본동 복지관이 주축이 되어 사회복지공동기금의 지원 아래 지역화폐운동 창립 세미나가 개최되는 등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3. 외국의 지역화폐운동

지역화폐제도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3,00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형태와 그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영국에서만 현재 거의 500여 개의 지역화폐제도가 있고 회원이 2,000명 정도 되는 세계 최대의 '블루마운틴 레츠'를 거느리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에도 약 300개 이상의 지역통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밖에도 캐나다와 미국,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의 여러 도시와 농촌에서도 활발하게 지역화폐운동이 시행되고 있으며 남미와 아시아 등지에도 급속도로 번지고 있어 지역화폐제도는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박용남, 2001). 2004년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독일 바드 호네프(Bad Honnef)의 가톨릭 사회연구소(Katholisch Soziales Institut, <http://www.ksi.de/>)에서 "유럽에서의 보완화폐"(Complementary Currencies in Europe)라는 주제로 개최된 회의에서는 총 22개 유럽의 국가들이 참가하여 자국의 지역화폐를 소개하고 서로 논의하였다.

현재 유럽국가의 레츠 수는 그 발생지인 캐나다 및 미국을 크게 능가하는데(니시베 마코토 西部 忠, 2000), 어떤 시스템에는 100명 이하의 회원도 있지만 또 어떤 시스템에는 수천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경우도 있다(임종한, 2004).

니시베 마코토 西部 忠(2000)에 의하면 지역화폐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LETS의 경우, 영국에 약 500개가 있으며, 프랑스 225개, 호주 170개 이상, 미국 110개, 네덜란드 90개, 독일 90개, 뉴질랜드 70개, 벨기에 29개, 캐나다 27개, 아일랜드 20개, 오스트리아 19개가 있고,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멕시코, 스페인에도 20개 미만의 레츠가 있다. 현재 레츠는 영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의 국가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김동배, 김형용, 2001; 소병철, 유창수,

2004; 임종한, 2004; 이창우, 2000 참조) 각 국가에 따라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레츠는 이미 영국 사회 경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에 사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환경운동가 내지 대안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

호주는 세계적으로 지역화폐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히는데 1997년 말 현재 200개 이상의 지역품앗이가 있다. 호주 레츠의 특이한 점은 결성과정에서 정부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며 아울러 레츠가 시민운동적 차원이 아니라 생활의 한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한 90년대 후반에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현재 전국에 걸쳐 170여개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돈과 경제에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를 살리려는 노력이 일본 지역화폐운동의 핵심이다. 일본에서는 통장형, 지폐형, 통장·지폐형, 시간예탁형, 전자카드 보완형 등 다양한 지역화폐가 시도되고 있으며 인접한 지역에서도 서로 다른 형태의 지역화폐가 운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뉴질랜드에는 1986년 James의 Whangarei 레츠가 처음 등장했으며 이후 계속 성장 발전하여 1993년 현재 75개의 레츠가 운영되고 있다(Jackson, 1997; Williams, 1997). 뉴질랜드 레츠의 성장도 호주와 같이 정부의 역할이 크다. 정부가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레츠의 성장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아일랜드에는 약 30개 정도의 지역품앗이가 운영되고 있다. 아일랜드의 웨스트포트(Westport)에서는 회원에게 수표책을 배포해주고 있으며 지역화폐는 인근 산이름을 따 '리크(Reek)'로 명명하고 1분의 노동시간의 평균임금을 1리크로 정하고 있다. 참여자들이 지역화폐로만 거래하도록 유도하기위하여 시중화폐와 지역화폐 간의 환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 뉴욕주 이타카 시에는 새로운 지역화폐 '이타카 아워'가 있는데 1아워는 10달러의 가치를 지닌다. '이타카 아워'의 약 10% 정도는 자선단체나 시민단체에 보조금으로 무상 지급되어 주민복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레츠 지역화폐의 시초인 1983년 Courtenay 레츠 설립 이후 1987년 12개의 레츠가 생겼으며 현재까지 30개 정도의 레츠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이밖에도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지역의 제3세계에서도 지역통화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서구 선진국에 비하면 그 숫자는 매우 적다. 대표적인 예로는 아프리카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서 운영되는 'Bons De Travail', 남미 아르헨티나의 'Salta Provincial Bonds', 브라질의 'Curitiba

Scrip’, 아시아 인도의 ‘Bonus Scrip’ 등이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자체 발행한 아워즈와 유사한 형태를 띤다.

4. 지역화폐운동에 대한 선행연구

그동안 지역화폐운동에 관한 연구들은 “녹색평론”을 중심으로 많이 소개되었는데,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LETS의 중심 철학 또는 운영원리를 설명하거나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가의 LETS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페트리샤 녹스, 닉 잉글랜드, 1996;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1999; 바바라 브란트, 1996; 길세이 팡, 폴린 윌리엄스, 1998; 자나 포티어, 1998; 베르나르 리에테르, 1998; 이채언, 2000; 베르나르 리에테르, 2002;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2002; 가라타니 고진, 2003;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2004).

우리나라에서 연구되어 온 그동안의 지역화폐에 관한 연구들 중에는 지역화폐제도의 시스템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몇 편 있다.(이채언, 2000; 원용찬, 2001; 강수돌, 2002, 류동민, 2003). 그밖에 지역화폐운동을 소개(조나단 크롤, 박용남 옮김, 2003; 에드가 칸, 구미요한센터 옮김, 2004)하거나 우리나라 지역화폐운동의 실태를 분석한 연구(이숙례, 1999; 이창우, 2000; 임종환, 2004; 류은화, 2000; 강환세, 2005), 지역화폐운동 참여자의 동기를 분석한 연구(권인천, 2001), 지역화폐운동과 공동체 의식 형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김형용, 2000; 김동배, 김형용, 2000; 김동배, 김형용, 2001), 지역화폐운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류동민, 최한주, 2003) 등 지역화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대부분이다.

반면에 지역화폐제도의 실행을 통해 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 연구(이득연, 1999)와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특정 지역화폐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분석 연구도 몇 편 있다(박용남, 2001; 류동민, 최한주, 2003; 류은화, 2000; 강환세, 2005). 이 이외에도 지역화폐에 관한 출판물을 소개한 연구(이창우, 2004)와 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박상현, 2004; 소병철, 유창수, 2004)들이 있다.

지역화폐운동이 비교적 최근에 우리나라에 소개되었고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운동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기존의 경제체제와는 다른 제도 속에서 경제 및 거래행위를 하는 지역화폐제도의 참여자들에 대한 연구 특히 거래를 하는 소비자로서의 소비행동이나 소비태도 더 나아가 소비행태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지역화폐운동은 기존의 시장경제제도가 가지고 있는 빈부격차, 실업, 불신, 공동체 붕괴 등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경제제도로써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운동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화폐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소비행동과 소비태도와 이를 통해 나타나는 지역화폐운동에 내재하는 소비문화에 대한 연구는 지역화폐운동과 그 참여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소비연구의 영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연구영역의 한 분야라고 하겠다.

III.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대안경제제도인 지역화폐운동이 지니는 소비문화적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화폐제도인 한발레츠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지역화폐제도가 지니는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한발레츠 구성원들의 참여활동과 이를 통해 경험하는 소비행동과 소비태도를 분석한다. 이를 기초로 지역화폐운동이 지니는 소비문화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한발레츠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 연구문제 2. 한발레츠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 연구문제 3. 한발레츠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소비행동과 소비태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지역화폐운동이 지니는 소비문화적 의미는 무엇인가?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병행 사용하였다.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특정집단의 일상 세계에 비교적 장기간 참여하여 그들의 삶과 문화를 관찰, 기록,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참여관찰은 연구하고자 하는 세계에 들어가서 그 곳의 환경과 사람들의 생활과 친숙해지는 일로부터 시작된다(김아영, 2000; 집 제이퍼 메이슨, 김두섭 옮김, 1996). 한편 집단심층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Method)은 7-8명 정도의 참석자들이 모여 사회자의 가이드에 따라 정해진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게 하는 조사방법으로 사회자는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정보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김희경, 1995) 조사방법이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2004년 5월부터 한발레츠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2005년 8월 현재까지 참여관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발레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소비행동 및 소비에 대한 인식태도를 조사하기 위한 집단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2005년 4월 11일 약 2시간 동안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가입기간, 거래정도, 소모임 활동여부, 기혼여부, 거주지 등 전체 회원의 구성비를 고려하여 한발레츠 담당 두루지기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 이들 조사대상자에 대한 집단심층면접은 참여자 소개, 한발레츠 참여과정 및 참여활동에 대한 내용, 참여의 경제적·사회적 혜택, 참여자의 경제적 관념과 태도, 한발레츠의 문제점 및 개선해야 할 점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집단심층면접 대상자 7명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은 <표 3>과 같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면접대상자의 이름은 실제 한발레츠에서 서로 부를 때 사용하고 있는 이름(별명, nickname)이다.

IV. 연구결과

1. 한발레츠의 운영실태

지역품앗이 한발레츠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아니라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한 사람들의 모임이

다. 서로가 제공할 것과 요청할 것을 공동체에 공개하여 필요한 곳에 적절한 노동과 시간, 재화가 머물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한발레츠는 이를 위해 지역화폐이자 공동체 화폐인 '두루'를 통하여 서로의 삶을 나눈다. 의·식·주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거래는 물론이고 의료, 재활용,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과 재화를 교환하고 때로는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달할 매개체로 '두루'를 사용한다. 지역화폐 '두루'는 1999년 10월에 만들었는데, '널리' 또는 '두루두루'라는 뜻이 담긴 순우리말로 일반 시민들이 쓰는 원화와 등가원칙을 적용해 1천 두루는 1천 원에 해당하는 값으로 정했다. 개인과의 1대1 거래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에게 '두루'를 선물하기도 한다(김성훈, 2003). 한발레츠는 2004년 12월 현재 총회원수 548명이고 2004년에 새로 가입한 회원은 91명이며, 회비 납부 인원수가 총 217명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화폐제도 중 하나이다.

1) 연혁

한발레츠는 1999년 10월에 시스템을 기획하였으며, 지역화폐시스템의 이름을 '한발레츠'로, 공동체 화폐명을 '두루'로 정하고 회원모집을 시작하여 2000년 2월에 약 70여명의 회원이 모여 창립총회를 가졌다. 2001년 6월 레츠등록소를 대전의제 21추진협의회로부터 독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 3월 대전시 민간단체로 등록하였다. 이후 2002년 4월 대전의료생활협동조합(준)과 함께 법동으로 등록소를 이전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2) 운영원칙

지역화폐 한발레츠는 실업 구제책, 노인복지 대안, 환경보전 수단 등으로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는데 그 운영

<표 3> 면접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

면접대상자 Nickname	성별	나이	직업	자녀수	거주지	한발레츠 가입기간
모래무지	여	38세	주부	2명	대전시 중구 태평동	3년
버들치	여	38세	주부	2명	대전시 동구 추동	3년
옥강	여	41세	주부	2명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4년
진달래	여	36세	주부	3명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1년
연어	여	31세	청소년지도사	미혼	대전시 동구 흥도동	3개월
봄봄	여	34세	주부	1명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3개월
조각구름	남	38세	과외교사	미혼	대전시 중구 석교동	1년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뜻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고 회원 간에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를 만들어 재화와 서비스를 배포한다. 둘째, 회원들이 제공할 수 있거나 제공받고 싶은 기술, 재화, 서비스, 자원 등을 목록화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배포한다. 셋째, 필요시 언제라도 한 회원이 지역화폐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회원과 거래할 수 있다. 넷째, 거래가 성립되면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은 지체없이 사무국에 통보하고 사무국은 회원 간에 이루어진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모든 회원에게 알린다. 다섯째, 지역화폐제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채권, 채무관계가 아니므로 이자가 없다. 여섯째, 모든 회원은 다른 회원의 잔액과 거래내역을 알 권리를 가진다.

3) 거래절차

홈페이지나 사무실로 연락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냄으로써 가입이 이루어지는데 가입비는 1만원 또는 1만 두루이며 연회비는 일년에 2만원이나 매달 2천 원씩 낸다. 제공, 요청하려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등록소에 알리면 등록소는 원하는 거래대상회원을 연결해준다.

등록소는 회원업무와 계정관리, 거래기록을 관리하는 사무실이면서 동시에 거래공간이다. 가맹업소의 경우 홈페이지의 ‘회원모듬정보’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발간하는 ‘품앗이도우미’ 책자를 통해 알 수 있어 따로 거래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거래가 이루어진다.

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은 직접 연락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해 가격과 두루 사용비율을 결정한 뒤 거래한다. 회원 간의 자율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면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자가 등록소에 연락해서 거래내역을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알린다. 거래내역은 각 회원들에게 공지되고 개인의 계좌에 거래액수가 정리·계산된다. 이것은 나눔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기도 하며 널리 알리는 뜻이기도 하다.

4) 거래방법

한밭레츠에서는 회원들이 서로 보유하고 있는 능력이거나 기술을 상대방에게 베풀고 자신도 필요한 서비스를 ‘두루’를 사용하여 주고받는다. ‘두루’는 현금대신 사용하는 공동체 화폐로 그 가치는 현금화폐와 같다(1,000두루=1,000원). 기본적으로 현금과 ‘두루’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 가격의 30% 이상을 ‘두루’로 거래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각 거래금액의 5%를 수수료로 적립하고 있다. 대체로 일반화폐로 거래되는 품목들은 두루와 현금을 섞어서 거래하지만 회원들끼리 재활용품을 사고 팔 때는 두루로만 거래하기도 한다.

5) 거래현황

2000년도에 회원들 간에 거래회수가 287회였던 것이 2004년에는 4,919회를 거래하여 해마다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래 총액을 보면 2000년도에 10,293,900원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94,256,790원으로 5년 동안 10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총 거래금액을 현금거래와 두루 거래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두루의 거래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두루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4 참조).

2004년 한 해 동안의 거래를 월별로 살펴보면 월별로 거래량에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만찬이 있었던 달에 거래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10월의 거래량은 다른 달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가을에 있는 농산물 거래와 품앗이 만찬에서 있었던 거래, 두루 부업의 거래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표5 참조).

2004년도에 한밭레츠에서 이루어진 거래내역을 월별로 따라 품목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가맹점에서의 거래가 가장 많았으며(25.9%), 다음으로 의료 거래(24.7%), 재활용품 거래(16.2%), 농산물 거래(14.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전에 없었던 배달이나 교육, 수수료 등의 새로운 거래가 시작되었다(표6 참조).

<표 4> 한밭레츠 구성원의 거래현황 (2000~2004년)

년도	거래 회수	두루 거래액	현금 거래액	거래 총액	두루비율 (%)
2000	287	4,866,000	5,427,900	10,293,900	47.3
2001	553	8,813,300	8,677,500	17,490,800	50.4
2002	1,503	28,403,130	20,493,450	48,896,580	58.1
2003	2,674	37,516,285	36,955,940	74,472,225	50.4
2004	4,919	53,211,295	41,045,495	94,256,790	56.5

<표 5> 2004년 한발레츠 거래현황

	거래 회수	거래총액(두루/현금)		제공자 수	요청자 수
1월	325	4,512,000	3,748,580	35	128
2월	294	4,577,210	3,403,400	41	104
3월	221	2,943,950	1,218,600	46	92
4월	605	4,725,980	3,417,620	62	174
5월	192	3,443,750	1,260,750	43	108
6월	425	3,671,070	1,986,820	63	119
7월	243	4,109,100	2,533,650	49	120
8월	330	3,211,250	2,518,200	59	130
9월	479	4,087,180	2,911,420	58	142
10월	833	6,278,100	5,286,870	67	212
11월	432	6,024,530	8,291,460	67	167
12월	540	5,627,175	4,468,125	70	172
총계	4,919	53,211,295	41,045,495	660	1668

<표 6> 2004년도 월별/분류별 한발레츠 거래내역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거래별	백분율
의료	68	99	89	125	82	77	78	68	115	183	120	121	1225	24.7%
농산물	2	67	6	127	4	38	5	48	58	88	129	121	693	14.0%
가맹점거래	213	59	60	151	43	68	48	59	221	183	103	78	1286	25.9%
제작	4	3	2	14	4	1	2	1	4	5	3	22	65	1.3%
자원활동	1	5	5	15	7	32	8	15	24	10	15	31	168	3.4%
대여	3	1	1	1	1		3	2	1	3	1	4	21	0.4%
재활용품	12	27	42	122	19	98	37	105	13	241	20	69	805	16.2%
서비스	2	3	2	6	4	8	6	6	5	6	7	14	69	1.4%
급여	8	8	9	10	9	7	8	8	12	13	13	12	117	2.4%
후원금	5	5	4	6	5		2		7	2	15	1	52	1.0%
회원용품	7			9	3	77	2		4	83	1	43	229	4.6%
수수료		9		7	1	4	2	2	2	8	4	8	47	0.9%
교육		7					36	12	2	16	7	8	88	1.8%
배달				19	11	15	5	6	14	7	1	4	82	1.7%
기타		1	2				1		1	1		4	10	0.2%
월별소계	325	294	222	612	193	425	243	332	483	849	439	540	4957	100.0%
총거래 대비	7%	6%	4%	12%	4%	9%	5%	7%	10%	17%	9%	11%	100%	총계

6) 가맹점 현황

레츠 회원이 두루로 거래가 가능한 곳을 가맹점이라고 하는데 홈페이지의 '회원모듬정보'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발간하는 '품앗이도우미' 책자를 통해 가맹점 목록을 제

공하고 있어 회원들이 따로 거래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각 가맹점에서 두루 거래를 할 수 있다.

현재 한발레츠 가맹점은 두루 적용업소 51곳이 있으며 개인회원으로 전환하여 두루를 거래하고 있는 업소는 11곳으로 이들은 레츠를 통해 이웃을 만나는 것을 더 선호

<표 7> 2004년도 현재 한발레츠 가맹점 현황

구분	업소명
두루 적용업소 51 곳	두레약국, 창조문화건축사사무소, 다니엘치과, 부드러운직선, 백당표구사, 도솔천, 늘푸른 내과, 웨딩코리아, 준 디자인, 하늘BOOK, 오래된 집, 카이스트 EMS교실, 테디베어, 자운열쇠, 해당 한의원, 형제수산, 스피드자동차종합서비스, 현대 유학원 리빙프로방스빌리지, 다사랑 스튜디오, 한국금고제작소, 목원도예, 소여공방, 애견농장, 한마루타운 공인중개사, 아기진달래, 노석 서예학원, 대승 카 클리닉, 국선도, 둔산시사교육원, 크로바학원, 태령전주식당, 맥시칸치킨, 다향산방, 피아노학원, 성지학원, 제페도, 어린왕자선교원, 이공갤러리(전형원), 차마시는집, 아프리카동물병원, 개인용달, 컴퓨터종합24시, 모던컨설팅, 영상제작소, 영드레스, 서울가정의원, 국제한의원, 김가정의원, 신현정 가정의원, 민들레 의료생활협동조합 의원/한의원,
개인회원 전환업소 11 곳	현대유학원, 크로바학원, 성진주방, 피아노학원(곽경량), 피아노학원(김지선), 주식회사마성, 성천인쇄, 명성건업, 씽크대, 피아노학원(최세경), 문구점(이규영)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7 참조).

2. 한발레츠 참여 활동

1) 참여 동기

한발레츠에 참여하기위해 가입하는 동기는 ‘한발레츠가 추구하는 이념과 취지가 마음에 들어서’, ‘이웃과 함께하는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등 개인의 경제적 동기보다는 이념적, 사회심리적인 이유가 많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1999)의 송과품앗이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념 및 취지 때문에(57.2%)’ 가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남을 도울 수 있어서(16.1%)’, ‘경제적 이유(11.7%)’, ‘이웃을 사귄다(4.4%)’, 순으로 응답해 지역화폐운동의 이념과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지역화폐운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몸이 아파 민들레생활협에 먼저 가입해서 활동하다가 한발레츠를 알게되어 재작년부터 활동하고 있어요.(옥강)

민들레의료생활협 왔다가 레츠 소개받아 재미있게 살려고 일년 전부터 왔어요.(진달래)

대전에 내려오게 되었는데 서울에서 녹색연합회원으로서 녹색연합 모임에 갔다가 한발레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2년 반이나 되었나봐요.(버들치)

2) ‘두루’를 통한 나눔 활동

한발레츠 회원들은 ‘두루’에 의한 거래를 통해 공동체에 참여한다. ‘두루’시스템에서의 거래는 많은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홈페이지는 회원들의 소식을 나누는 통로 역할을 하면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하지 않고 등록소를 이용해서 회원 간의 물품을 거래하기도 하며, 회원 각자가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품이나 구입해놓고 쓰지 않는 물품의 경우 등록소에 등록시킨 후 회원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여 등록소가 보살핌과 나눔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두루’ 시스템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은 물품이나 서비스 이외에도 아이디어, 노동력 등 모든 것을 나누고 교환하면서 돈 중심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래를 하면서 경쟁보다는 ‘보살핌의 원리’로 작동하는 경제체계를 만들고 있으며 지역화폐를 통해 생산, 소비, 유통, 재활용의 시스템이 지역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게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복원과 친환경적인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발레츠에서는 자연농법을 이용한 먹거리나 농산물이 직거래되고 건강과 관련한 의학 관련 상담이나 건강강좌 뿐 아니라 무용, 스포츠, 댄스 등 취미와 문화생활과 관련된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책, 옷, 재활용품들이 대여 또는 판매되고 있다. 그밖에도 노동력 제공, 운전대행, 워드대행 등 노동력 품앗이도 이루어진다. 한발레츠 구성원들은 서로 간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한발레츠 내에서 공동체 화폐를 통해 해결하려는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 그리하여 기존에 가입하지 않은 다양한 업소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생활의 욕구충족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3) 회원 간의 교류 활동

한발레츠에서는 ‘두루’를 이용한 일상적인 거래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두 달에 한번 정도 발행되는 소식지를 통해 회원 소개, 행사나 거래 알림 등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며 두 달에 한번 있는

야외만찬이나 회원운동회와 나물뜯기, 간장·된장·고추장 담그기, 오이지 담그기, 송편 만들기, 만두 만들기 등 계절활동을 통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생각과 의견, 나아가 삶을 나누고 있다.

그리고 여러 관심분야별로 품앗이학교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비의 부담 없이 '두루'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능력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 어떤 사람도 교육자가 될 수 있으며 피교육자도 될 수 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을 선보일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하며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면 함께 배우면서 생활을 나눈다.

한발레츠 참여자들은 서로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중요시하는 경제적 계급, 지위 등으로 부르지 않는다. 자기가 좋은 별명을 지어서 존칭 없이 그대로 부른다. 이를 통해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잡고 있는 성, 연령, 지위, 계급의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 자유롭고 대등한 지위의 한 자연인으로 서로가 만난다.

4) 공동체 지향의 나눔 활동

한발레츠의 전체 회원들과 서로 교류하고 나누기에는 시간과 거리에 제약이 있고 나눌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모임을 구성하였으며, 관심분야에 따라 서로 공유하며 함께 하기 위한 소모임을 구성하여 서로의 생활을 나누면서 더욱 풍부한 삶을 만들고 있다.

한발레츠에서는 물품과 서비스의 경제적 거래와 같은 개인적인 욕구에서 출발하여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개선하려는 공동체적 의식으로 관심의 영역을 넓히는 노력을 하고 있다. 아동양육의 사회화에 대한 관심에서 '공동육아'를 시도하였고, 의료부문의 개혁적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두루 부엌'을 통해 유기농법 재배식품을 지향하는 먹거리 개선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대안학교인 '꽃피는 학교'를 개교하여 교육 분야의 개혁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도 '이동영화관 상영', '민들레 간병도우미', '나눔 두루장터' 등의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으로 소외되어 있는 공동체 주민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통한 지역공동체적 의식과 생태적 가치들을 실천해나가고 있다.

5) 앞으로의 활동 방향

한발레츠의 구성원들은 '두루'가 현존화폐를 대체하여 기존 시장경제제도 아래 파괴된 공동체적 가치나 인간관계가 복원되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세력으로 키우기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공동체 화폐운동을 해오면서 한발레츠는 소식지 발행,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을 담당할 상근인력 확충의 문제, 운영과 재정자립의 문제, 다양한 연령층 확보를 통한 규모 확대의 문제, 함께 공유해왔던 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과 두루부엌, 꽃피는 학교, 공동육아 등 여러 네트워크 모임들과의 위상정립의 문제, 구성원들 간에 내재되어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소외의 문제 등 대안적인 경제제도로서의 공동체 활동운동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남겨두고 있다.

3. 한발레츠 참여자가 경험하는 소비행동과 소비태도

한발레츠의 운영과 참여 활동의 특성은 참여하는 소비자들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 심층면접조사 결과 나타난 한발레츠 참여자들의 소비행동과 소비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화폐의 가치를 창조하는 경제적 소비행동

한발레츠 참여자들은 두루를 통해 내가 필요하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거래하면서 화폐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한발레츠 회원들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생각나면 먼저 홈페이지에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올리거나 등록소에 문의하여 구한다. 또한 자신이 필요하지 않은 물품의 경우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등록소에 알린다. 이러한 한발레츠에서의 거래를 통해 새로운 제품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실제 생활경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화(다른 한발레츠회원의 별명)한테 장난감, 그네 등등을 얻어와요. 등록소로 가져오거나 그 집으로 방문해서 만나기도 해요. 등록소에서 아이들 신발, 반팔 옷, 장난감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진달래)

작년 1년 계정 결산을 해보니까 약 120만 두루를 벌어서 110만 두루를 사용했더라고요. 30만원짜리를 1만원에도 살 수 있으니까 120만 두루라는 것은 10배 20배의 가치가 있는 금액이에요. 보통 생활비의 10%이상은 두루로 거래하는 것 같아요.(버들치)

레츠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유기농산물이 있어서 주변에 선물을 할 때 전혀 걱정이 없어요.(옥강)

경제적인 도움도 받아요. 얼마 전에 28,000원짜리 버스카드를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다른 회원이 10,000원에 주었어요.(조각구름)

2) 지속가능한 소비행동

한발레츠 회원들은 함께 나누고 보살펴주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면서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행위를 하고 있다. 즉 재활용, 재사용을 생활화하고 있으며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행동은 유기농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해서 ‘두루 부엌’ 공동체를 실현시켰으며 유기농 재배, 두루 나눔장터 등 다양한 새로운 노력으로 확산시켜나가고 있다. 특정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어디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할 것인가 생각하기에 앞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먼저 생각하고 구입하게 되었다고 응답한다.

사실 레츠가 우리끼리 잘 살자고 하는 것도 있지만 환경을 의식하거나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니까 물건을 구매하려고 할 때 레츠에서 구매하거나 구매하려고 생각하기 이전에 꼭 필요한가 생각해 봐요.(옥강)

저는 생활이 굉장히 바뀌었는데요. 예전에 침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딘가에 가서 침대를 사셨지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데 침대가 꼭 필요한 것인가? 예를 들어 사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요. 그래서 구매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버들치)

3) 공동체와 나누는 소비행동

한발레츠에서는 두 달에 한 번씩 만찬행사를 한다. 각자가 함께 나누어먹을 음식을 준비해서 모두 한자리에 놓고 함께 먹으면서 서로의 삶을 나눈다. 이때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가져와 판매하기도 하고 본인이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와서 판매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고 있다. 또한 한발레츠에서는 고가의 제품이거나 사용빈도가 적은 물품의 경우 물품보관소에 보관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동의 사용으로 함께 나누고 보살피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

같이 함께 잘 사는 방법을 모색해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끌어들이는 것 말이에요. (버들치)

커피 한잔을 대접하는 것도 아까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찬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면서 누구와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함께 하고 싶어하고 편하게 만나고 싶어하는 만찬 때는 무엇을 준비해도 부담이 없어요.(진달래)

이웃과의 만남, 바자회가 가장 재미있었어요. 낯선 일이었지만 즐겁고 좋았어요.(진달래)

만찬이 레츠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거의 130-150명 정도가 모여요. 어떤 단체에서건 어떤 행사를 하건 이렇게 동원될 수 있는 대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서로 보고 싶어하고 마음 편하게 하루를 즐기고 오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회원들한테 있는 거예요.(버들치)

4) 경쟁과 소유의 욕구에서 자유로운 소비태도

시장경제를 원리로 하는 자본주의 하에서 경쟁은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철학으로 이기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고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경제체제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한발레츠에서는 이러한 경쟁의 틀과 속박에서 벗어나는 삶을 누리고 있다. 소유하지 않았어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소비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마이너스의 경제 상태에서도 겁나지 않는 소비태도를 보일 수 있다.

반면에 아무리 많은 두루 화폐를 가지고 있어도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소유가 부를 축적시켜주지 않으며 따라서 경쟁과 소유에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발레츠 구성원들은 그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

레츠를 알게 되면서 아이들을 공동육아에 보내게 되고 공동육아에 보내면서 자연과 함께 살아야하고 함께 다같이 살아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버들치)

그냥 도시에서 살았다면 아이들이 100점 맞는 것이 중요했을 거고, 남편 연봉도 좀 더 올라가면 좋을 테고, 우리가족, 나, 어쨌든 앞으로 앞으로, 위로 위로 가는 것만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에 와서 사람들이 다 같이 즐겁게 잘 사는 방법들을 늘 고민하게 되었어요.(버들치)

5) 자기가 가진 것을 제공함으로써 얻는 만족

한발레츠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다양한 형태의 거래로 만난다. 에드카 칸(2004)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였다. 한발레츠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능력이라도 나눌 수 있다. 시장자본주의에서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지 못하는 것을 가치있게 생각할 수 있게 해 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주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평가받거나 퇴출되지도 않는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무한한 잠재력이 발현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행복하고 기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다.

능력은 안 되더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준다면 오해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마음대로 줄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요가 같은 운동을 해주고 있는데, 주니까 오히려 정신적인 만족감이 들어요. 해보면 부족함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공부하게 되기도 하구요.(조각구름)

해보고 싶은 일들을 실현해볼 수 있는 곳이에요.(조각구름)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도움을 줄 수 있어 너무나 기뻐요.(연어)

문화유산, 노래모임, 엄마랑 아가랑, 일어모임, 등등 여러

모임에서 자기가 가진 재능을 한발레츠 사람들과 나누고 있어요.(모래무지)

6) 평등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만나는 관계

한발레츠에서는 서로 직함을 부르지 않고 별명을 부른다. 또한 존칭을 사용하지도 않는다. 사장님, 교수님, 박사님, 연구원님, 차장님, 의사선생님 등의 호칭이 전하는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누구나 나이의 서열에 따라 서로가 위축되는 일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서로에게 보여주고 솔직한 감정으로 대한다.

이를 통해 소통이 원활해지며 경제적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인한 위축감이나 상대적 위계감에서도 벗어나 공동체 구성원들 서로가 자주적인 한 개인으로 만난다.

이는 계급이나 직함 등 시장경제질서 속에서 중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위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관계상으로서 지역적 소모임이나 품앗이학교에서의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의 관계에서도 실현되고 있었다.

친구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나이 차이나 선입견 같은 것을 배제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날 수 있어요.(옥강)

전업주부인 내가 가질 수 있는 위축감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런 저런 계급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버들치)

배움을 주고받을 때는 주종관계, 상하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서로 동등한 위치로 설 수 있어요.(조각구름)

7) 즐겁고 행복한 삶의 태도

한발레츠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여 서로가 경제적으로 상부상조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이나 도움 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도와주면서 삶과 생활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불안감이 줄고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더욱 큰 혜택을 얻게 된다. 함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있어 삶의 무게를 크게 느끼지 않고 즐거움과 행복감을 누리고 있다.

현금보다는 마음이 풍요로워졌어요. 이전에는 지갑에 현금이 최소한 10만 원 정도 비상금이 있어야 했어요. 항상 불안했어요.(옥강)

지금은 1,000원 몇 장만 있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급하면 달려올 수 있는 민들레의료생협이 있고, 레츠가 있으니까요. 위기의식에 대한 준비 그런 것에서 평화로워졌어요.(옥강)

4. 지역화페운동의 소비문화적 의미 분석

지역화페는 '회소성'에 기반을 두는 일반 화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풍부함'에 기반을 두는 화페로서 기존의 화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량소비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불안의 문제, 환경과 공동체 붕괴의 문제, 소비만능주의 현상, 그리고 불신의 문제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고안된 대안경제제도이다.

본 장에서는 대안경제제도인 한발레츠 참여자들의 소비행동과 소비태도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지역화페운동이 담고 있는 소비문화적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즉 한발레츠 참여자들이 지역화페운동을 어떻게 인식하며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지역화페운동이 지니고 있는 소비문화적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1) 공동체사회 실현을 통한 소외 탈피

한발레츠에서는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를 모색하고 실현하고자 하며 이러한 노력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 강수돌(2002)은 지역화페운동을 '소유와 축적 중심의 생활방식을 관계와 나눔 중심의 생활방식으로 바꾸는 운동'이라고 설명한다. 지역품앗이운동인 한발레츠는 이해집단, 세대, 계급간 장벽을 허무는 역할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며 이를 통해 공동체를 살리는 운동이다. 즉 지역화페운동의 공동체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현대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마음이 편하다는 것은 동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서 편한 거예요.(옥강)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오니까 마음이 편해요. 이 안에서 계속 새로운 무엇인가를 모색하게되요. 의료생협도 그렇고 대안학교도 그래요. 새로운 대안사회를 위해서 또 이 안에서 움직임이 모여서 무엇인가 결실을 가지게 될 거예요.(버들치)

전에는 꼭꼭 숨어서 살았어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이 모임에 와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훈련을 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주눅 들어 있었어요. 재미로 왔던 심심풀이로 왔던 편하게 어울릴 수 있어요.(진달래)

한발레츠가 활성화되면 세상에 대한 나쁜 편견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요.(진달래)

사람과 사귀는 점이 한발레츠의 가장 좋은 측면이겠지요.(모래무지)

2) 환경친화적 가치 실천

지역화페운동은 지역성과 관련하여 생물지역주의를 중

요하게 생각하며 환경친화적 시스템을 중시하는 환경운동이다. 생물지역주의가 환경친화적 공간시스템이라면 지역품앗이는 그 공간을 운영하는 경제시스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경제시스템으로서의 지역 품앗이(community currency institution), 공간시스템으로서의 생물지역주의(bio-regionalism), 사회시스템으로서의 퍼머컬처(perma-culture)가 삼위일체를 이룰 때 진정한 의미의 환경친화적 공동체 건설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이창우, 2004),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역화폐운동은 진정한 의미의 환경친화적 가치를 지향하고 실천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국화한테 장남감, 그네 등등을 얻어 와요. 등록소에 가져 오거나 그 집으로 방문해서 만나기도 해요. (진달래)

저는 생활이 굉장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물건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면 어디에서 살까를 고민했는데 이제는 그 제품이 꼭 필요한 것인가 생각해봐요. 구매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버들치)

3)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내에서 가능한 돈이 오랫동안 자주 순환하게 만들어주면 더욱 많은 부가 창출될 수 있는데, 지역품앗이 한발레츠에서는 두루를 통한 거래로 새로운 경제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명절 선물 때도 레츠에서 나오는 사과, 농산물 같은 것을 이용해요. 이제는 무엇을 선물할까 염려하지 않아요.(옥강)

품앗이 도우미 책자에 모든 제품에 대한 목록이 있어서 제공하고 싶은 것과 제공받고 싶은 것이 회원별로 다 나오는데 서로 회원끼리 주고 받고 교환하면서 지내요.(버들치)

4) 자신의 능력 계발과 실업자 구제수단

한발레츠를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가치있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키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즉 지역품앗이 한발레츠는 개인적 성취감을 제고해주며 레츠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게 하기도 하며 자신감과 자존심을 살려 사회생활을 더욱 운기있게 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를 통해 지역품앗이 한발레츠는 훌륭한 실업자 구제수단이 되기도 한다. 실업자로 하여금 노동시장과 계속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나중에는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또한 스스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능력은 안 되더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준다면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마음대로 줄 수 있어서 좋아요. 요가 같은 운동을 해주는데 정신적인 만족감이 들어요. 해보면 부족함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공부하게도 되요.(조각구름)

자신감, 자아실현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행복하거든요.(조각구름)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시간을 정해서 자연스럽게 서로 공부해와서 함께 나누지요. 공부하는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서로 나누어서 하니깐요.(옥강)

5) 신뢰를 통한 거래로 신용사회 구축

한발레츠에서의 모든 거래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의 필수요소인 무한경쟁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거래와 관계는 나눔과 보살핌의 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바, 신뢰를 그 중심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나아가 신용사회를 구축하게 해준다.

한발레츠가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진달래)

같이 함께 사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요.(버들치)

전에는 많이 경직되어 있었어요. 무엇을 해도 촌스러웠는데, 이곳은 촌스러워도 편해요. 촌스러운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요.(옥강)

우리끼리 어울릴 수 있는 모임에서 돈이 최고다 하는 것이 배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눈다는 것 자체에 매료되는 것 같아요.(봄봄)

Williams(1996)는 지역화폐운동이 자립적 지역사회 건설, 생태주의 사회로의 진보, 지역사회 상호원조기능의 확대, 지역주민 역량강화 등 네 가지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위의 논의에 의하면 지역화폐운동은 공동체 구성원의 자신감 회복, 신용사회 구축, 네트워크를 통한 소외 극복, 지속가능한 소비로 환경적·생태적 가치 실현 등의 소비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바, 지역화폐제도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잉태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바람직한 대안적경제제도로 평가될 수 있겠다. 즉 지역화폐제도는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불안감, 상대적 비교, 박탈감, 고립감 등을 치유 받을 수 있는 대안적인 경제제도로써 지금까지와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이루는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발레츠 참여자들은 처음부터 생태적이고 공동체식에 대한 강한 목적성을 가지고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다양한 거래에 참여하면서 이들이 느끼고 깨닫는 생태적인

삶의 의미, 공동체적인 삶의 가치들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를 내가 도울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나-기존의 삶의 관점에서는 특별한 재주나 능력이 없었지만-를 필요로 한다는 점,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자아를 발견하고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공동체와 자신의 주위를 돌아보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역공동체 화폐운동을 'Fun' 또는 'Exiting'으로 표현하고 있다. 기존의 화폐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미건조하며 냉정할 뿐이었지만 지역화폐인 공동체화폐는 그 자체가 즐거움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발레츠 참여자들의 소비행동과 소비태도를 통해 살펴본 지역화폐제도의 소비문화적 함의는 거래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지향하여 행복한 소비생활을 추구하는 소비자주의가 지향해야 하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하겠다. 지난한 소비자주의의 노력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대사회의 많은 모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제도가 담고 있는 소비문화적 의미들을 소비자주의에 활용함으로써 바람직한 소비자주의의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V. 요약 및 결론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지속 불가능한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를 개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당장 어렵다 할지라도 다소라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생물지역주의를 토대로 하여 우리 삶의 양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재조직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한 방안이 바로 통화에 대한 통제수단을 지역공동체가 갖고 유희상태의 기술과 자원을 다시 순환시키는 지역화폐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화폐제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소비행동 및 소비태도를 통해 지역화폐제도가 가지는 소비문화적 함의를 분석하는 탐색적 연구로서 지역화폐제도의 하나인 한발레츠를 중심으로 지역화폐제도가 가지는 소비문화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소비문화는 소비행위와 관행을 나타내는 일반적이고 분석적인 개념으로 소비행위와 소비태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소비행동과 소비태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지역화폐운동이 가지는 소비문화적 의미를 분석하

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주의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탐색해볼 수 있었다.

참여관찰과 집단심층면접을 통해 한발레츠 참여자들의 소비행동과 소비태도로 나타나는 함축적인 내용을 살펴 보았으며 이러한 행동과 태도가 내포하고 있는 포괄적이고도 거시적인 소비문화적 함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지역화폐운동이 담고 있는 소비문화적 의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동이 지향하고 있는 이념과 철학이 소비행동과 태도로 표출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발레츠 참여자들은 지역화폐운동을 통해 화폐의 가치를 창출하는 소비행동을 하고 있었으며, 지속가능한 소비행동을 추구하고 공동체와 나누는 소비행동을 하였다. 이를 통해 경쟁과 소유의 욕구에서 자유로운 소비태도를 보이며 자기가 가진 것을 제공함으로써 만족을 얻는 소비태도를 보였고 구성원들과는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었다. 따라서 지역화폐제도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소비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다.

지역화폐는 문화적이며 인간적인 측면이 있다. 지역화폐를 통해 사람들은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공유자원으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 함께 나누고 즐기는 행복과 즐거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경제 세계화의 와중에서 모든 사람들은 일회용이 되지만 지역화폐 제도 내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독특하고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 따라서 지역화폐는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지역화폐를 통하여 공동체의식을 더욱 높이고 이해집단, 세대, 계급 간 장벽을 허무는 역할도 하고 있다.

도시 특히 대도시에 있어서의 공동체의식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 일반시민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활기 있는 삶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시간을 내어 고민하게 하는 그 어떠한 인센티브도 동기부여도 없다. 그러나 지역화폐제도는 주민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보살피게 하는 동기부여를 제공해주고 있다.

레츠는 무엇보다도 지역경제를 외부세계의 경기변동이나 전국적 금융혼란이나 통화혼란, 인플레이션 재정위기로 인한 경제마비로부터 지역경제를 보호하고 주민들의 생계를 안정시키는데 유용한 시스템이다. 레츠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의 사회적 결속을 강화시키며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지역화폐제도인 한발레츠 참여자들의 소비자행동과 태도를 통해 지역화폐운동이 가지는 소비문화적 함의를 살펴본 결과 지역화폐운동은 공동체사회 실현을 통해 소외를 탈피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환경친화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 개발과 실업자구제수단의 역할도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신뢰를 통한 거래로 신용사회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미래학자 엘빈토플러는 우리들 모두를 生費者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합성한 언어로 생산만 하는 사람도 없고 소비만 하는 사람도 없다는 뜻으로 우리들 모두의 역할을 재조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도시화과정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고 경제와 환경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21세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지역품앗이, 지역화폐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지역화폐제도인 한발레츠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소비행동과 소비태도를 통해 지역화폐운동이 지니는 소비문화적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현대사회의 대안경제제도로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체계 안에서 생활하는 소비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지향해야 할 소비자주의의 대안적 방안을 모색해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연구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한 탐색적 연구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 지역화폐운동, 레츠(LETS), 소비행동, 소비태도, 소비문화적 의미

참 고 문 헌

- 가라타니 고진(2003). NAM에 대하여, 녹색평론, 68(1-2), 94-110
-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대담(2002). NAM과 지역통화, 녹색평론, 65(7-8), 97-118
- 강수돌(2002). 이윤과 권력을 동시에 넘는 실험 : LETS운동, 문화과학, 32(겨울호)
- 강환세(2005). 지역통화운동에 관한 사례연구 : 사회감사 접근법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인천(2001). 지역화폐운동 참여의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서설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배, 김형용(2000). 지역통화운동을 통한 지역공동체형성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_____ (2001). 지역통화운동이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5, 40-71
- 길 세이팡, 콜린 윌리엄스(1998). 레츠-상호부양의 교환체계, 녹색평론, 40(5-6), 95-104
- 김성훈(2002). 한발레츠, 그 다양한 실험을 위하여, 한발레츠 실험 3년 평가 워크샵 자료집
- _____ (2003). 이곳에는 미친 돈 바람이 불지 않는다, 한발레츠 자료실
- 김아영(2000). 관찰연구법, 교육과학사
- 김형용(2000). 한국 지역통화운동의 성격과 참여자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경(1995). 광고와 마케팅 조사는 이렇게 한다, 도서출판 정보여행
- 니시베 마코토, 류동민 옮김(2000). 지역통화 LETS : 화폐, 신용을 뛰어넘는 미디어, 可能なるコミュニズム, 太田出版.
- _____ (2002) 지역통화 LETS에 대하여, 녹색평론, 65(7-8), 119-139
- 류은화(2000). 국내 지역통화운동의 실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동민(2003). 잉여가치론의 재구성을 위한 연구노트, 경제학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류동민, 최한주(2003). 지역통화운동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한발레츠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9(1)
- 바바라 브란트(1996). 공동체의 돈 만들기운동, 녹색평론, 27(3-4), 57-66
- 베르나르 리에테르 Bernard Lietaer(1998). 탐욕과 희소성을 넘어서, 녹색평론, 40(5-6), 114-129
- _____ (2002). 공동체화폐, 녹색평론, 65(7-8), 150-175
- 박경화(2004).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사는 법, 명진출판
- 박상현(2004). 일본 지역통화(에코머니) 도입실태, 도시정보, 01, 15-18
- 박용남(2001). 한발레츠-나눔과 보살핌의 공동체실험, 녹색평론, 60(9-10), 29-43
- 소병철, 유창수(2004). 지역통화-희망을 만드는 돈 : 호주, 미국, 일본, 한국의 사례, 녹색평론 75, 83-94
- 아베 요시히로, 이즈미 루이, 전정근 옮김(2003). 누구나 알 수 있는 지역통화 입문- 미래를 여는 희망의 돈, 아르케
- 에드가 칸, 구미요한센터 옮김(2004). 타임달러와 코프러덕션-이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아르케
- 원용찬(2001). 화폐의 심볼리즘, 한국경영경제연구, 1(1)
- 이득연(1999). 소비생활에서의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 이숙례(1999). 지역화폐, 도시문제, 34(371), 123-126
- 이창우(2000). 지역품앗이운동 소개, 제 2건국을 위한 지역품앗이운동 설명회 자료집
- _____ (2002). 우리나라 지역화폐 운동의 현황 및 과제, 한발레츠 실험 3년 평가워크샵 자료집
- _____ (2004) 지역통화 실험은 계속된다, 녹색평론, 75,

- 95-103
- 이채언(2000). 화폐가치 및 화폐제도에 관한 가치론적 접근, *경제분석*, 6(2), 1-28
- _____(2000). 상호부양의 교환체제, "레츠"시스템에 관한 이론 및 경험의 연구, *경제발전연구*, 6(2)
- 임종한(2004). 지역화폐, 대안적 경제공동체운동과 협동조합운동, *한발레츠 자료실*
- 자나 포티어(1998). 지역통화-공동체를 살리는 기술, *녹색평론*, 40(5-6), 105-113
- 조나단 크롤, 박용남 옮김(2003). 레츠 : 인간의 얼굴을 한 돈의 세계, 이후
- 집제이퍼 메이슨, 김두섭 옮김(1996). 질적 연구방법론, 나남출판
- 패트리샤 녹스, 닉 잉글랜드(1996). 레츠와 녹색경제-영국의 레츠, *녹색평론*, 27(3-4), 66-67
- 헬레나 노르베리-호지(1999). 방향의 전환-전지구적 의존에서 지역적 상호의존으로, *녹색평론*, 47(7-8), 98-119
- _____(2004) 세계화에서 지역화로-21세기를 위한 사상 강좌, *녹색평론*, 75(3-4), 2-34
- 西部 忠 (2000). 地域通貨 LETS-貨幣・信用を超えるメディア, 可能なるコミュニズム, 太田出版.
- Brandt, B (1995). *Whole Life Economy*, New Society Publishers, Gabriola Island
- Cahn, E (1997). the Co-Production Imperative, *Social Policy* 62.
- Jackson, M (1997). The Problem of Over-Accumulation: Examining and Theorizing the Structural Form of LE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Currency Research*, 1.
- Lietaer, Bernard A (1997). A "Green" Convertible Currency, from <http://www.transaction.net/money/gc/gc01.html>
- Lietaer, Bernard A (1998). Community Currencies : A New Tool for the 21st Century, from <http://www.transaction.net/money/cc/cc01.html>
- Linton M, Soutar A (1994). LETS System Design Manual, from <http://www.gmlets.u-net.com/>
- McCracken, G (1988). *Culture and Consumption*, Bloomington IL: Indiana University Press
- North, P (2000). The design defects of user created complimentary currencies and how they might be overcome, paper presented to Working Group C3, *International Network of Engineers and Scientists for Global Responsibility conference*, Stockholm, Sweden, June 2000.
- Pacione, M (1997).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s as a Response to the Globalisation of Capitalism, *Urban Studies*, 34, 8
- Seyfang, GJ (1997). Examining Local Currency Systems: A Social Audit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Currency Research*, 1
- Seyfang, GJ & Williams, CC (1998). 레츠-상호부양의 교환체제, *녹색평론*, 40(5-6), 95-104.
- Thorne, L (1996).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s in the United Kingdom : a case of re-embedding?, *Environment and Planning* 28
- Williams, CC (1996). Local Exchange and Tradings Systems : a new source of work and for the poor and unemployed?, *Environment and Planning*, 28
- _____(1997). 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LETS) in Australia: A New Tool for Community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Currency Research*, 1

관련 사이트

우리나라 지역화폐

<http://www.tjlets.or.kr/index.html> 대전 한발레츠

<http://www.herenow.co.kr/main.php> 서울 종로구 미내사클럽

<http://www.pumasi.net/> 안산 고잔 품앗이

<http://songpavc.or.kr> 송파 품앗이 또는 송파머니

<http://www.sbsd.net/> 주민자치센터 상봉레츠

<http://stbank.giveu.net/> 중앙대학교 부설 종합사회복지관 기술·도구은행

<http://www.pska21.or.kr> 관악주민연대

<http://www.mindle.org> 민들레 교육통화

<http://www.ngu.or.kr/sarang/> 그린네트워크의 녹색화폐

외국 지역화폐

<http://bewoner.dma.be/LETS/main.htm/>

<http://bewoner.dma.be/strohalm/>

<http://ccdev.lets.net/africa.html/>

<http://ccdev.lets.net/asia.html/>

<http://ccdev.lets.net/asia.html#thai/>

<http://ccdev.lets.net/gallery.html/>

(각 지역의 레츠 통화 사본)

<http://ccdev.lets.net/index2.html/>

<http://ccdev.lets.net/japon.html/>

<http://ccdev.lets.net/latin.html/>

<http://letsjent.tripod.com/>

<http://members.aol.com/efssociety/>

<http://www.alternatives.com/lets/letsmainc.html>

<http://www.alternatives.com/lets/letsspeed.html>

<http://www.breadhours.org/>

<http://www.ex.ac.uk/~RDavies/arian/local.html/>

(종합적 정보제공)

<http://www.freenet.edmonton.ab.ca/lets/>

<http://www.glasswings.com.au/GlassWings/utopia/lets.html>

<http://www.gmlets.u-net.com/home.html/>

<http://www.lets.guelph.on.ca/>

<http://www.lets.org.au/>

<http://www.letslinkuk.demon.co.uk>

<http://www.lightlink.com/ithacahours/>

<http://www.newciv.org/ncn/moneyteam.html/>

(종합적 정보제공)

<http://www.neweconomics.org/bne/index.html/>

(종합적 정보제공)

<http://www.pipcom.com/~ptbolets/index.html/>

<http://www.prairienet.org/community/religion/idf/currency.html/>

<http://www.schumachersociety.org/>

<http://www.skyport.com/cheesemelt/letslist/>

<http://www.sustainability.org.uk>

<http://www.timedollar.org/>

<http://www.tradebankonline.com/main.cfm>

<http://www.transaction.net/money/>

<http://www.transaction.net/money/lets/index.html>

<http://www.transaction.net/money/gc/gc01.html>

<http://www3.plala.or.jp/mig/japan-uk.html/>

(2005. 07. 11 접수; 2005. 08. 15 채택)